

계시(啓示)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신다는 뜻이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를 (즉, 생명, 구원, 영생의 신비) 하느님께서 직접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신비를 하느님께서 먼저 알려주고 스스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 한다.

계시에는 대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 드러내시는 간접계시와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는 직접계시가 있다.

1. 간접계시

대자연(自然)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느님

우리는 대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움에 경탄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혹은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우주의 위대함에 새삼 탄복한 경험을 가진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겸허하게 귀기울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인간 양심(良心)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느님

하느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심을 가지고 있다.

사랑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진리를 인간의 양심 깊은 곳에 심어놓아 인간으로 하여금 양심의 법에 복종하도록 하셨다. 이 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善)한 것을 행하고 진(眞)실하게 살아가며, 아름답게(美) 살아 가도록 마음의 귀에 경종을 울려 준다. 하느님은 진(眞). 선(善). 미(美)이시기 때문이다.

2. 직접계시

예언자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세상 여러 민족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의지를 드러내셨다.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통해, 이사야를 통해, 야곱을 통해,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통해, 또 많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 가를 알려주셨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느님 (계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때가 되어, 하느님은 구약의 약속과 예언대로 구세주가 보내심으로써 새로운 약속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이때는 신약시대로 하느님께서 직접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다. 하느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 그 정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이셨다.

성서(聖書)와 성전(聖傳)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성서(聖書) :

성서는 성령의 감도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써,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쓰여진 성서 46권을 구약성서라 하고,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쓰여진 27권을 신약성서라고 한다. 구약성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구세주에 대하여 하느님께서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뜻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과연, 구약의 예언과 약속대로 하느님께서서는 신약에 와서 당신의 계시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책을 우리는 신약성서라 한다. 신약성서는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된 마태오, 마르코, 루가, 요한 네 가지 성경을 '사복음(四福音)' 이라고 한다. 복음(福音)이라는 말은 인류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복된 말씀이라는 뜻이다.

성전(聖傳) :

성전이란 성서에 기록되지 않고 전해오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즉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서이고 하느님의 말씀 중에서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만 전해 오는 것을 성전이라 한다. 교회는 성서와 똑같이 성전을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성전은 성서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 주셔서 당신의 계시를 환히 밝혀 주셨다. 인간은 예수로 인해 생(生), 로(老), 병(病), 사(死)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얻게 되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도래는 분명,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다. 여기서 선물로 주어진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해 인간의 응답이 요청된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부르신다. "나를 따라 오너라"(마태 4, 19), 여러분이 이 성당에 찾아온 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한 것이다.

겸허히 응답하는 우리 자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께 응답하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느님은 모든 이를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신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마태 16, 24).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실 천

"인생은 한 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떤 철학자가 말했다. 이 말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겸허히 응답하여, 하느님을 따르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을 과감히 한 가지씩만 버리도록 실천해 보자

[요약]

직접계시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알려 주시는 것.

간접계시는

하느님께서 대자연과 양심을 통하여 당신을 알려 주시는 것.

직접계시는 어떻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까?

성서와 성전으로 전해져 옴.